

# 샌들, 부츠, 하이힐, 스니커즈에 담긴

## 시대정신과 욕망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신발, 스타일의 문화사

엘리자베스 세밀렉 지음, 황희경 옮김

샌들은 고대에 착용되다 로마 제국 말기에 외면을 받은 신발이다. 그러나 수세기 후 18세기 말에 이르러 서구 패션에 등장했다. 19세기 중반 겹소한 삶을 지향했던 영국의 심플 라이프족이 신었던 인도풍 샌들, 20세기 중반 히피가 신었던 디자인 샌들은 독특하거나 이국적 취향을 지닌 사람들과 연관이 있었다.

이후 샌들은 고급 패션에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정치 색과는 무관했다. 나아가 레저와 놀이, 나아가 우아함과 세련됨을 상징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개인 특유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정치 성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웃이 사람을 말해주는 것처럼 신발 또한 그러하다. 다시 말해 신발 또한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성별과 성격은 물론 추구하는 가치까지” 많은 것을 함의하

기 때문이다.

샌들과 부츠, 하이힐, 스니커즈에 담긴 시대정신과 욕망을 읽어낸 책이 출간됐다. ‘신발, 스타일의 문화사’는 신발에 관한 늘립고도 매혹적인 책이다. 저자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바타 신발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엘리자베스 세밀렉.

그녀는 패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사학자로, 패션 큐레이터 세계의 판도를 바꾼 인물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사실 신발의 원래 목적은 이동의 편리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발은 실용성 외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신체적 편리보다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디자인”되거나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저자는 “부적절한” 신발을 선택했을 때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고정된 사회적 인식이 신발에 매우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언급한다. 신발이 성별을 알리며 나아가 지위를 선언하거나 저항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책은 네 가지 주요 신발의 전형인 샌들, 부츠, 하이힐, 스니커즈에 초점을 맞춰 쟁점을 조명한다.

샌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레이먼드 덩컨이 있

다. 현대무용가 이사도로 덩컨의 오빠로, 관습에 얹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했다. 1910년 순회공연을 위해 미국에 왔을 때 언론은 “인간 사회의 기록에 남겨진 그 어떤 복장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평했다.

1930년대 경제 불황은 여성복에서 샌들의 호황을 가져왔다. 1931년 잡지에 실린 샌들 광고에는 “대중의 지갑 사정과 판매자의 수익 니즈에 맞는 상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러나 샌들은 남성에게는 쉽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밸트를 노출하는 이브

츠에 에로틱한 이미지가 더해진 건 19세기 말이었다. 20세기 중반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이나 스크린헤드족 같은 하위문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착용했다.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하이힐은 수세기 동안 성적 욕망이 투영된 유혹의 액세서리로 간주됐다. 다시 말해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성을 강조하는 아이콘이었다. 짧은 치마에 착용한 힐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았지만 한편으로 욕망과 사치라는 부정적 의미로 기호화됐다.

튼튼하고 쌈 가격에 대중적 신발 형태로 자리 잡은 스티커즈는 현대인을 위한 완벽한 액세서리로 인식된다. 특히 몇몇 신발은 상품화와 브랜딩을 통해 욕망의 대상이 됐고, 이에 따라 한정판 스니커즈에 열광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저자는 이전에는 복식 액세서리가 성별과 계급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지금은 신발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문화적으로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책을 읽다 보면 ‘인간은 왜 신발을 신는가?’라는 질문이 절로 이해가 된다. 신발의 변신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아날로그·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지음



### 고등어가 있는 풍경

한경용 지음



### 요즘 언니들의 갱년기

김도희·유혜미·임지인 지음



한경용 시인의 세 번째 시집 ‘고등어가 있는 풍경’이 서정시학 시인선 기획으로 발간됐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지난날에 대한 오래고도 진중하고 고백과 스스로의 삶과 시를 향한 비전이 녹아 있는 경험적인 미학적 기록”이라는 표현처럼, 이번 창작집은 고백, 경험, 미학이 어우러진 시편들의 모음집이다.

‘죽은 시인의 무곡’, ‘지리산의 피리소리’, ‘성애’, ‘렁닝구 시대’, 등 모두 60여 편의 시는 시인 특유의 활달하면서도 서정적인 언어와 역동적인 사유를 담고 있다. 특히 그의 작품 가운데는 ‘바다’로부터 유연하는 이미지가 많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한 이력이 보여주는 정작의 무니다. 모든 예술가는 나고 자란 공간의 DNA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에 따른다면 시인의 ‘창작의 바다’에는 물리적인 바다가 언제나 펼쳐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부들은 그물 속에/ 절망거리는 투명을 길어 올린다/ 포구의 바닥에는 눈일들이 부러져 있다/ 물로 그린 형상이 시간 속에 무엇을 남겨놓았나/ 심해에 무덤을 남겨놓을 수 없는 운명/ 종족의 기억으로 뒷자국을 씻을 때/ 아득한 개펄 너머 물컹물컹 울음이 변진다…”

위 표제시 ‘고등어가 있는 풍경’은 원초적이면서도 신학적인 그림면서도 현실적인 포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고요와 침잠 너머 역동과 삶의 무게가 투영된 포구는 서정과 서사, 환상을 그려안고 있다.

공광규 시인은 “한경용만의 제제와 방법, 영성의 종합이 이번 시집에서 서정적 광휘로 빛난다”고 평한다.

〈서정시학·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린궁



#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